

생각이 쑥쑥 자라는 어린이 철학교실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갔지만 부모님과 캠프에 온 물리. 물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자 화가 나서 어찌 할 줄을 모른다. 물리는 친구들이 '수학여행이나 보내버릴 걸' 하고 후회하도록 말문을 부리기 시작한다. 아침식사도 않고 캠프장에서 나와버린 것. 나쁜마음으로 길을 걸어다보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 커다란 멍까지 생기고. 그냥 필대로 대라는 심정으로 길가의 풀밭에 누워버린다.

잠시후 물리는 뺨에 뺨가 간질간질한 것을 느낀다. 그것은 셋노랑고 가운데는 약간 짙은 주황이며,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는 뾰족한 꽃잎들로 이루어진 흔하니 흔하니 민들레이다. 하지만 정말 아름답다. 물리는 천천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에 민들레가 피어 마치 금빛 카펫이 깔려 있는 듯했다. 저 너머로 완만한 언덕이 보이고 그림에는 시냇물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물리는 이곳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도 이 꽃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철학교실 <생각이 자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동화는 아름다움이 여러 다양한 자극(아름다운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것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예컨대 친구와 다투어 어떻게 화해할까 하고 고민하며 견다 보면 아름다운 공원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사방 어디에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고 찾지만 어떤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행복한 삶' '착한 행동' '봉사' '아름다움' '진실' '인내' 등의 말은 어린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자주 듣고 말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들의 뜻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았을까?

사실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쉽게 듣고 넘겨 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말들임에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것은 자주 듣는 말이다 보니 다들 당연히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도 없고, 주변에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니...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본 어린이는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한 다음이므로 좀 더 창조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려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처

럼 스스로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이 책은 '행복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려준다. 또 어린이 스스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때 행복의 길을 스스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거나' '마음을 열어'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준다.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바뀌어야 할 행복은 자기성찰이나 자기중심적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과 장소들, 사건들에 마음을 열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얻으려면 지금 이순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해준다. 책 속의 이야기 중에는 유명한 고전도 있지만, 창작동화도 많이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쓰여진 이들 창작동화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이야기에 빠져들어 주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때 어린이의 연령이나 관심, 사고의 수준에 맞게 각 주제별로 있는 다섯 개의 이야기 중에서 골라서 읽도록 하면 좋다. 저자는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이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구성했다고 하지만, 특히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에게 더욱 적합할 것 같다.

또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싶지만 무엇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어떻게 질문하고 생각을 이끌어낼지를 고민하는 어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저자인 폴 크레그혼(Paul Clegghorn)은 영국 스코틀랜드 중부의 클라크마나셔 주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로, 주(州)교육위원회에서 사고의 기술 프로그램 담당 위원이기도 하다.

공동저자인 스테파니 보데트(Stephanie Baudet)는 1986년에 동화 <눈사태>를 처음으로 출판한 이후 어린이를 위한 책을 계속 집필해 오고 있으며, 이 책의 공동저자인 폴 크레그혼과 함께 여러 권의 어린이 철학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쉽게 지나치는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것들 가운데 조금만 의식하고 찾으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자라는 이야기 1, 2 스테파니보데트, 폴 크레그혼 지음 덕터필로스 | 9500원

네티즌강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된 고문

아만시대의 기록 박원순 지음, 역사비평사

고문이란 무엇일까? 이 책을 읽어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교차하게 만든 단어이다.

우리가 흔히 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폭력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 하는 행위 라고 나는 생각 한다. 지적인간이 기를 포기 하고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을 추구하는 즉 짐승 같은 행위를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직도 폭력이 분명히 존재 하고 있다. 심지어 가족끼리의 폭력 이것은 폭력의 세습을 의미 한다.

하물며 이 사회의 최소 단위의 가정에서의 폭력도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데 사회 공권력의 집단적인 폭력인 고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말살 하는 행위라고 생각 한다. 어떤 폭력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을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오랜만에 좋은책을 만나서인지 기분까지 좋아진다.

(paulkim69k, lifelog.blog.naver.com/paulkim69)

책속의 밑줄긋기

달라이 라마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 지난 50년동안 망명생활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티베트인을 전부는 달라이라마를 자신을 삶의 중심인물로 보아왔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가 티베트가 분리되고 고립되어 문화,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과거와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가 떠난다면 게임의 판세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가 나 할까 걱정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떠나고 없다면 중국이 티베트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태를 진정시킬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달라이 라마> 본문 490-491쪽 중에서, 데브라 하트 스트로버, 제럴드 S. 스트로버 지음, 즐거웁텍스트

일곱 개 컬러 에너지를 조화롭게 쓰는 법

○... 빛은 에너지다. 컬러는 빛에서 나온다. 그 결과 컬러들에서 나오는 에너지 혹은 컬러 에너지가 된다. 몸의 에너지 발전소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활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인적으로 생각하고 전인적인 치료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에너지 발전소를 전인적인 전체로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일곱 개의 컬러 에너지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작동해야 한다. 비록 유전되었거나 타고난 긍정적인 소질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소질만을 사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못하다. 그것은 기동 자동차를 하나의 기동으로만 운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곱 개의 기동을 모두 사용하도록 창조되어 있다. 컬러 에너지 센터들은 모두 회전해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컬러 에너지> 본문 57쪽 중에서, 잉거 네스지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제해결 선사님 역사 / 조지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원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해결 선사님께서 일체종자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해결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사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절결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달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3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시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돌샘밀양

... 유식은 그 자체로 과학이자 철학이다.
... 새 바움의 양과 뱀을 여실히 깨달아 오해로 거듭나지.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람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평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 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思想 釋明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실험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전국블서구입점 · 유통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겨울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옛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물과 함께 정성껏 사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턱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3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18,000원 (x2병)

산사조청원의 명품

솟아오르지않는 산수참꽃 조청 1.2kg
이월, 냉중, 위장장애,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항기혈병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산수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